

Choong Sup LIM

임충섭

5th - 30th May, 2010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70
70 Sokyuk-dong Jongno-gu Seoul 110-200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뉴욕에 거주하며 한국과 미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작가 임충섭(1941~)이 4년 만에 학교재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연다.

임충섭은 이번 전시에서 신작 <월인천강月印千江>과 함께 2000년 이후부터 제작해온 작업들을 전시하며 지난 10년 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고희(古稀)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연구하고 도전한 40여 점의 작품을 학교재 전관에서 선보인다.

퇴계(退溪)의 철학으로 현대 미술의 질문에 답하다.

<월인천강>은 원래 불교의 교리로, 직역하면 ‘달이 천 개의 강을 비춘다’라는 뜻이다. 달빛이 천 개, 즉 모든 강을 비추듯 부처님의 은덕이 모든 백성에게 비춘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부처님이 한 분이지만, 그 은혜는 마음속에 부처를 담은 모든 이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월인천강>에 대한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년)과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1527~1572년)의 대화는 성리학의 이기론(理氣論)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논쟁 중 하나이다. “물에 비친 달도 달이다. “물에 비친 달은 달이 아니다.”를 놓고 조선의 두 철학자는 실재와 허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충섭은 자신의 <월인천강>을 두고 “물에 비친 달 또한 달이다.”라고 주장한 “이황 이론이 승리”라고 말했다. 이는 곧 실재와 허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이다. 임충섭은 동양의 철학자 이황이 이미 16세기에, 오늘날 현대 미술이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앞선 고민과 답변을 모색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서구의 이론을 연구하고 응용하는데 반해 임충섭은 <월인천강>에서 동양의 철학자 이황의 이론을 빌어 자연의 진리인 순환과 순리를 거슬러 폭력적으로 변질된 서구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한다. 임충섭은 이처럼 서양의 중심에서 오랜 시간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정신성을 이어온 작가로 주목받는다.

미술은 ‘내 마음 파내기’

<월인천강>에서 물속의 ‘달’이 ‘달’일 수 있는 이유는 물에 비친 달빛 때문이 아니라 그 달을 보는 ‘마음’ 때문이다. 모든 행동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임충섭은 작가가 미술 언어로 형상화하는 이야기의 원천은 자기 내부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주 ‘의식 여행’을 떠나는 등 끊임없이 자기 내면에 묻혀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결국 작품은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는 것이므로 임충섭은 미술이 ‘내 마음을 파내는 일’이라고 말한다.

추상화(抽象化)의 과정 속에 마음의 본질과 정수를 찾다.

<깨달을 각(覺) 8폭 병풍>은 임충섭이 한국의 전통 8폭 병풍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깨달을 각(覺)을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한 그는 이것을 이용해 병풍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병풍 어디에서도 각(覺)의 형상을 찾아볼 수는 없다. 임충섭은 이 병풍을 만들기 위해 각(覺)을 여러 번

문명과 자연 사이에서 여백을 발견하다.

임충섭은 자신의 작품을 “현대 문명과 자연 사이에서 얻어진 여행담”이라고 말한다. 그가 사는 곳은 현대 문명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그 중에서도 가장 도시적 속성이 두드러진 뉴욕이다. 유년기에서 비롯된 자연에 대한 향수를 품고 그는 매주 도심 속에서 자연을 찾아 한 시간 남짓 드라이브를 한다. 그는 이를 ‘의식여행’이라 일컫는다. 이 여행의 시간 속에서 문명의 틈새에 스며들어 있는 자연을 발견하고 때로는 단절되어 있는 듯, 때로는 대조적으로 보이는 이 둘 사이에 ‘미술언어’로 조형적 다리를 놓아가는 것이 그의 작업이다. 임충섭은 자연과 문명 사이에서 동양화의 여백을 발견한다. 그의 작품에서 여백은 ‘비어있는 곳’일 뿐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결국 임충섭의 작업은 여백을 발견하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월인천강月印千江>, 하늘과 지상을 잇는 다리를 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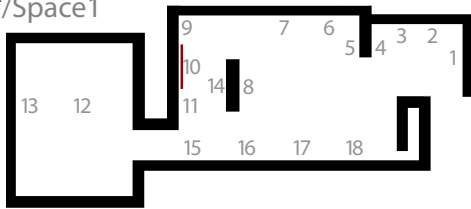
<월인천강>에서 나는 하늘 그 자체가 아니라 지상과 하늘의 연계성을 표현하고 싶었다.

임충섭 작가노트중

비디오에 담긴 달의 이미지는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그 모습을 온전히 보였다 감추었다 하며 작은 연못을 비춘다. 이는 스님의 목탁 소리, 계곡의 물소리, 귀뚜라미 울음소리 등과 함께 어우러지며 명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연못 속에는 마치 한 쌍의 부부처럼 보이는 흑(黑)색과 백(白)색의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 이들은 단순한 관상용이 아니라 이 작품의 퍼포머(performer)이다. 이들은 투명한 연못의 물을 돋보이게 하며 달빛 아래서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퍼포먼스(performance)를 한다. 선(禪)양식의 고요한 정원을 연상시키는 <월인천강>은 임충섭이 지난 3년에 걸쳐 제작한 작품이다.

임충섭은 <월인천강>을 통해 “하늘과 지상을 연계하고 싶었다.”고 한다. 여기서 하늘은 ‘절대적 자연’을, 지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사회’를 말한다. 임충섭은 달빛으로 인해 하늘과 물에 모두 ‘달’이 존재하는 것에서 착안해 <월인천강>으로 ‘하늘’과 ‘땅’의 연계를 시도했다. 임충섭은 이렇듯 분절된 개념을 ‘자연의 요소’와 ‘기술적 요소’를 통해 ‘명상적인 방법’으로 연결했다.

본관/Space1



드로잉 하여 단순화한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다. <느린 걸음>은 사람과 말 그리고 소의 느린 걸음걸이를 수십 번 드로잉 하여 얻은 형상이다. 그 어디에도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느림의 미학’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는 고스란히 전해온다. <채식주의자Ⅲ>는 ‘불심’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스님의 모습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왔다. 인간의 형상을 찾을 수는 없지만 담백한 컬러와 절제된 표현은 그 의미를 명확히 전달한다. 임충섭은 대상을 수차례 드로잉하고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 복잡한 형태에 가려진 대상의 핵심에 도달한다. 즉 추상화(抽象化)를 통해 대상의 본질과 정수를 찾는 것이다.

동양적 감수성의 원천을 ‘달’에서 찾다.

서구 세계에서는 달보다 해가 더 큰 영향력을 지녔던 듯한 달이 갖는 동양의 시적 개념을 화해, 그것을 관념적 언어로 풀어보고 싶었다. 달은 해보다 더 음성적(陰性的) 시적 구조와 이미지를 엮을 수 있는 소재다. 나에게는 달빛이 영상시키는 단색적 사고(monochromatic thinking) 개념이, 해보다 더 진한 여백의 개념으로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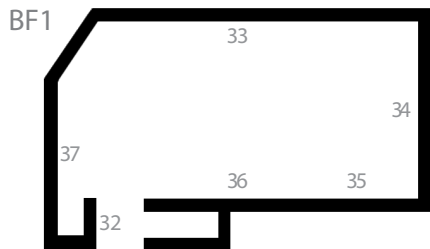
임충섭 작가노트 中

서양의 경우 ‘태양’이 그들의 사상과 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데 반해, 동양, 특히 한국인에게 ‘달의 질서’가 큰 영향을 주었다. 절기와 날씨를 주관한 달은, 우리 민족에게 신앙에 가까운 존재였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달이 풍요다산을 이루어줄 뿐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주재신(主宰神)적 존재라 믿어 정화수를 떠놓고 달에게 소원을 빌기도 했다. 심지어 달항아리를 제작해 달의 형상을 방안에 들이는 등, 달을 행성 그 이상의 존재로 여겼다. 그에 반해 서양에서의 달은 불길함의 상징으로, 마녀나 늑대인간 등의 요물(妖物)들은 어김없이 달밤에 활동한다. 임충섭은 동양인으로서 오랫동안 미국에 살며 태양의 생활권 아래 있었지만 오히려 태양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달의 시적 개념을 취하여 이번 전시의 작품을 구성하였다.

햇님은 달님의 여백이고 달님은 햇님의 여백이다.

해는 달이 사라진 뒤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달은 해가 사라지면 해의 빛을 반사(反射)한다. 임충섭은 이를 보고 ‘햇님은 달님의 여백이요, 달님은 햇님의 여백이라’ 고 말한다. 자연은 어떤 강압적인 힘이 없어도 서로 순환하며 자신들의 역할을 다한다. 이와는 달리 현대 산업 사회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재구성 되어있다. 이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방식이다. 임충섭은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산업사회의 폭력적인 시간 개념에 대한 반성을 유도한다.

신관/Space2



1 Dialogue-Object
2010
Acrylic on canvas
80×80inch

2 Snow Orchid
2009
Acrylic on canvas(encaustic), UVLS gel
18×90×4(h)inch

3 Scape Fussil
1995-2010
Mixed media
each 5×12 inch

4 Leaf
2009
Etching
25×21 inch

5 Between
2009
Acrylic, wax, rice paper
25×40 inch

6 Slow Walk
2005
Shaped canvas, acrylic, wood, UVLS gel, rice paper
46×66×3(h)inch

7 Ssal
2009
Acrylic on canvas(encaustic), UVLS gel
18×90×4(h)inch

8 Vegetrian III
2005
Canvas, acrylic, UVLS gel
12×26×4(h)inch

9 Ta-Rae II
2010
Threads and mixed media
installation

10 Awakening-Dialogue 8 Abstractions
2005
IND 8 pieces, encaustic canvas, rice paper, acrylic
each 12×74×3(h)inch

11 Porcelain-Dichotomy 09
2009
Canvas encaustic acrylic, UVLS gel
36×42×3(h)inch

12 월인천강(月印千江) - Wol In Chun Kang
2009 - 2010
Video projector, sound system, water tank, 2 fishes
installation

13 Orum-Narim
2000-2009
Wood, rice paper, threads, wall & floor installations
95×60×40(h)inch

14 Ground-10
2006
Acrylic, rice paper, UVLS gel
34×41 inch

15 Fountain-Baby
2009
Canvas encaustic acrylic, UVLS gel
26×50×2(h)inch

16 Scape-River
2009
Canvas, acrylic, rice paper UVLS gel
30×60 inch

17 Durumi-Durumagi
2008
Shaped canvas, encaustic stone powder, UVLS gel
24×76×2(h)inch

18 Scape-Mountain
2009
Canvas, acrylic, rice paper UVLS gel
30×60 inch

19-30 Sky@.10.com Series
2010
Mixed media
17×47 inch

31 Scape-Perception
2008
Canvas, rice paper, threads, acrylic
30×60 inch

32 Untitled
2007
Rice paper, wood, rock
28×40 inch

33 Silk Road-Dicholll
2007
Mixed media
insallation

34 Scape-Instrument
2009
Canvas, acrylic, rice paper UVLS gel
30×60 inch

35 Vanishing Point -Down 07
2007
Acrylic on canvas, pencil, crayon, UVLS gel
66×66 inch

36 Vanishing Point -Up 07
2007
Acrylic on canvas, pencil, crayon, UVLS gel
66×66 inch

37 Scape-Implant
2009
Canvas, acrylic, rice paper UVLS gel
30×60 inch

38 월인천지(月印千地) - Wol In Chun Kang
2009
Mixed media with DVD player, sound system
insallation

39 Implantation
2006
Acrylic, rice paper, UVLS gel
28×36 inch

Choong Sup, LIM

5th - 30th May, 2010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77
77 Sokyukdong Jongrogu Seoul 110-200 Korea
T +82 2 739 4937-8 F +82 2 739 4435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Choong Sup LIM

임충섭

5th - 30th May, 2010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70
70 Sokyuk-dong Jongno-gu Seoul 110-200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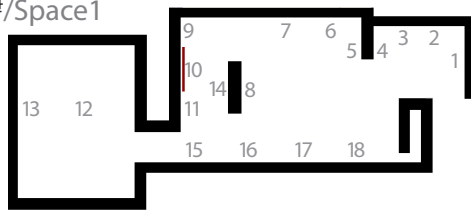
Choong Sup Lim's 〈Wol In Chun Kang 月印千江〉 is a work that literally brings the moon down to earth. Two small fish dart about in a square reflecting pool in the shadow of a mesh swath draped from floor to ceiling. Passing over the water and the mesh are ever shifting video images of the moon as it waxes and wanes. The movement of the moon has a counterpart in the background audiotape that mixes rhythmical sounds of nature and human activity.

The effect is magical and contemplative, evoking the experience of sitting quietly in a Zen garden in the moonlight. But the installation is also designed to offer a visual representation of an ancient debate between two Korean philosophers, Hwang Lee and Deh Soong Ki. Does the reflection of the moon in the water contain something of the moon's essence, or is it simply an illusion created by the reflected light of the moon and the stillness of the pond? Is experience a matter of mind or eye? Or to put the question in terms of postmodern theory, is there any reality apart from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As the moon slowly alters between its states shifting from round full orb to crescent to the potent emptiness of the new, or invisible, moon, the viewer is able to contemplate these possibilities with the same tranquility that one hopes surrounded the original debate between Lee and Ki.

〈Wol In Chun Kang〉 also poses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time. Throughout history, the monthly phases of the moon have been associated with a cyclical vision of time. Ever changing and ever returning, the shifting moon draws with it the changing tides, finds its counterpart in the female reproductive cycle, and provides a model for the cycle of seasons. In all these ways, it reminds us of the almost forgotten experience of life in an agrarian world. Such a conception of time is in sharp contrast with the industrial world's reformulation of time as a driving, one directional force taking us inexorably and irreversibly from point A to Point B.

Lim's work has always offered a mediation between such apparently antithetical realities. As a Korean artist who has lived for many decades in the West, and as a farm boy who now resides in the concrete canyons of New York City, he brings an agrarian, Buddhist inspired sensibility to that most postmodern of Western environments. His work exists in the cracks between these two realities - literally so when he isolates and prizes the embattled remnants of nature attempting to break through the cracked sidewalks and streets of the city, and metaphorically so in the way he superimposes his memories of nature and Korea's rural past onto the flotsam and jetsam of contemporary

본관/Spac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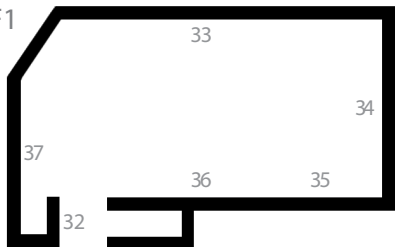


신관/Space2

F1



BF1



BF2



urban life. This approach manifests itself in his “urban fossils”, careful arrangements of found detritus that become alternative landscapes partaking of both city and country, or when he makes reference to traditional Korean farm implements or musical instruments, reshaping them to suggest landscape and architectural formations.

In such works Lim combines the sensibility of the poet and the Buddhist. On one hand, his work reminds us of the words of William Blake, who sees the world in a grain of sand, or Marcel Proust, who remarked that “All objects have memories of their own.” On the other, it evokes the eternal Now of the Buddhist, for whom time and space do not exist as separate entities, but instead are all part of a larger universal consciousness. In the end, all Lim’s works are about the existence of the past in the present and a remaking of the past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present. They celebrate the vision articulated by T.S. Elliot in a moment of Buddhist inspired clarity:

And the end of all our exploring Will be to arrive where we began
And know the place for the first time.

—T.S. Eliot, <Four Quartets>

Eleanor Heartney / Art Critic—Art in America

1 Dialogue-Object
2010
Acrylic on canvas
80×80inch

2 Snow Orchid
2009
Acrylic on canvas(encaustic), UVLS gel
18×90×4(h) inch

3 Scape Fussil
1995-2010
Mixed media
each 5×12 inch

4 Leaf
2009
Etching
25×21 inch

5 Between
2009
Acrylic, wax, rice paper
25×40 inch

6 Slow Walk
2005
Shaped canvas, acrylic, wood, UVLS gel, rice paper
46×68×3(h) inch

7 Ssal
2009
Acrylic on canvas(encaustic), UVLS gel
18×90×4(h) inch

8 Vegetarian III
2005
Canvas, acrylic, UVLS gel
12×26×4(h) inch

9 Ta-Rae II
2010
Threads and mixed media
installation

10 Awakening-Dialogue 8 Abstractions
2005
IND 8 pieces, encaustic canvas, rice paper, acrylic
each 12×74×3(h) inch

11 Porcelain-Dichotomy 09
2009
Canvas encaustic acrylic, UVLS gel
36×42×3(h) inch

12 월인천강(月印千江) - Wol In Chun Kang
2009 - 2010
Video projector, sound system, water tank, 2 fishes
installation

13 Orum-Narim
2000-2009
Wood, rice paper, threads, wall & floor installations
95×60×40(h) inch

14 Ground-10
2006
Acrylic, rice paper, UVLS gel
34×41 inch

15 Fountain-Baby
2009
Canvas encaustic acrylic, UVLS gel
26×50×2(h) inch

16 Scape-River
2009
Canvas, acrylic, rice paper UVLS gel
30×60 inch

17 Durumi-Durumagi
2008
Shaped canvas, encaustic stone powder, UVLS gel
24×76×2(h) inch

18 Scape-Mountain
2009
Canvas, acrylic, rice paper UVLS gel
30×60 inch

19-30 Sky@.10.com Series
2010
Mixed media
17×47 inch

31 Scape-Perception
2008
Canvas, rice paper, threads, acrylic
30×60 inch

32 Untitled
2007
Rice paper, wood, rock
28×40 inch

33 Silk Road-Dicholll
2007
Mixed media
insallation

34 Scape-Instrument
2009
Canvas, acrylic, rice paper UVLS gel
30×60 inch

35 Vanishing Point -Down 07
2007
Acrylic on canvas, pencil, crayon, UVLS gel
66×66 inch

36 Vanishing Point -Up 07
2007
Acrylic on canvas, pencil, crayon, UVLS gel
66×66 inch

37 Scape-Implant
2009
Canvas, acrylic, rice paper UVLS gel
30×60 inch

38 월인천지(月印千地) - Wol In Chun Kang
2009
Mixed media with DVD player, sound system
insallation

39 Implantation
2006
Acrylic, rice paper, UVLS gel
28×36 inch

Choong Sup, LIM

5th - 30th May, 2010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77
77 Sokyukdong Jongrogu Seoul 110-200 Korea
T +82 2 739 4937-8 F +82 2 739 4435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